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초콜릿 속에 숨겨 건넨 '사랑의 천만원'

'사랑의 김밥 장사' 전남대 학생들에게 "당신들이 있어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익명의 여성 편지와 함께 수술비 기탁

학우 어머니의 심장병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김밥을 만들어 팔아 화제가 되고 있는〈본보 12월6일자 8면〉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7일 뜻밖의 큰 선물을 받았다.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사회대 '신사회 편집실'에 모여 김밥을 말고 있는 데, 각각 50대와 30대 여성 2명이 찾아와 수술비에 보태라며 현금 1천만원을 몰래 내놓고 간 것이다.

이들은 학회장 손범석(24·2학년)군을 밖으로 불러 "학생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다"며 미니 초콜릿바 3봉지가 가득 담긴 쇼핑백을 전달했다.

손군은 이들에게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고 고마운 마음을 나중에라도 전달하기 위해 이름 등을 물었으나 이들은 한사코 대답을 피하며 도망치듯 사라졌다.

손군은 안으로 들어와 다른 학생들과 쇼핑백을 펼쳐보고 나서 초콜릿바 봉지 밑에 감춰져 있던 현금 1천만원과 작은 카드를 뒤늦게 발견했다.

카드에는 '모두가 함께 보는 꽃밭에 물을 주는 마음으로, 모두가 걸어 가는 길에 쓰레기를 줍는 심정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이 길로 올 수 있었습니다. (학생 어머니의) 수술이 잘 돼 건강을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당신들이 있기에 세상이 아름답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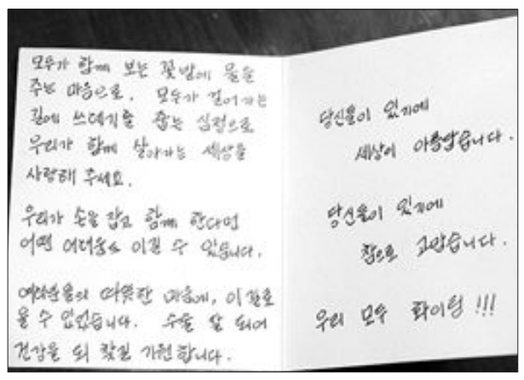
손군은 학우 손모(19·1학년)양 어머니의 심장병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김밥판매를 통한 모금운동을 펼치면서 개설한 광주은행 통장(계좌번호 074-107-326163)에 이 돈을 입금했다. 학생들은 8일까지 김밥을 판매해 200만원을 모을 계획이었지만 7일 현재 모금액은 120만원에 그치고 있다.

손군은 "이 분들 말고도 돈을 보내기 위해 계좌번호를 묻거나 쌀을 기증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아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양의 어머니는 심장병 악화 외에도 오랜 투병생활로 비장·간 등 다른 장기의 기능이 약화돼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하나 혈소판 수치가 낮아 수술이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술비는 입원비를 포함 4천만~5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여성 2명이 내놓고 간 현금 쇼핑백.



'당신들이 있기에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긴 카드.

광주시교육청 이달 중순께 인사

동·서부교육장 동시발령 날 듯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이 이달 중순께 동부·서부교육장을 포함한 교육청 인사를 단행할 계획으로 알려져 그 배경과 인사 폭에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공모를 실시한 동부교육장을 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임명제청하면서 윤영월 교육장 대기발령으로 공석이 된 서부교육장도 소정의 절차를 밟아 임명제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광주시교육청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안 교육감이 이달 중순 일부 교육청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 교육감은 "윤 교육장이 교육장의 임기 2년을 넘긴데다 국정감사 욕설파문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만큼 교육부와 협의해 대기발령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윤 교육장의 징계로 이미 한 달 동안 업무 공백이 생긴 서부교육장을 공모할 경우 거의 두 달 가까이 교육장 자리가 비게 돼 교육행정의 능률성 차원에서 임명제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 교육감은 이어 "이번 동부교육장에 공모한 7명 중 한 명을 임명제청할 생각"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교육감은 앞서 광주일보와의 취임 인터뷰에서 "동부교육장은 (공약대로) 공모를 하되 서부교육장은 정책기획단의 의견을 수렴해 공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교육청 인사는 동부교육장과 서부교육장 동시 발령이 큰 축을 이루고 시교육청 일부 핵심 보직에 대한 인사가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안 교육감이 조직쇄신과 혁신을 위해 시교육청 개청 이래 처음 구성한 정책기획단이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안 마련이 내년 2월께나 완료될 예정이고 이후 조직개편에 따른 대규모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주요 보직 인사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 첨단기술 해외유출 막아라" 국정원 설명회

'첨단산업 기술의 해외유출을 막아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광주지부는 7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본부에서 산업기술 유출방지와 보호 등을 위한 관계법 설명회를 가졌다. 국정원은 광주지역 첨단기술 관련 회사와 연구소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 내년 4월 발효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핵심산업기술 유출 예방책 등을 소개했다. 국정원은 광주·전남 36개 첨단기술 업체와 연구소의 첨단 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각 지역을 돌며 설명회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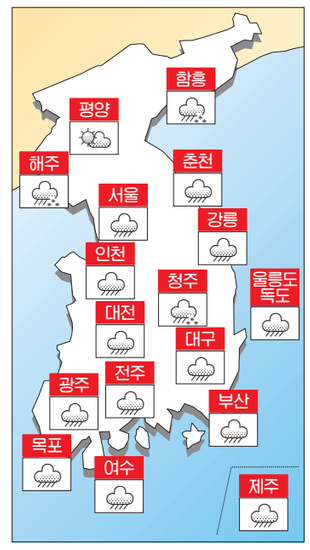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뿌연거리에 빗방울 소리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한두차례 비가 오겠다.

12월 8일 (음 10월 18일) ◇전국날씨

광 주	흐리고 비	6~9℃
목 포	흐리고 비	5~9℃
여 수	흐리고 비	6~9℃
완 도	흐리고 비	6~10℃
구 례	흐리고 비	5~9℃
해 남	흐리고 비	5~10℃
장 흥	흐리고 비	5~10℃
고 흥	흐리고 비	6~10℃
순 천	흐리고 비	5~9℃
영 광	흐리고 비	5~9℃
진 도	흐리고 비	7~10℃
전 주	흐리고 비	5~9℃
남 원	흐리고 비	3~9℃
정 읍	흐리고 비	5~9℃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5~2.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2.0~4.0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5~4.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2.0~4.0m

목 포 밀물〈 03:43 16:41 썰물〈 09:05 21:59
여 수 밀물〈 11:19 23:14 썰물〈 04:40 17:25

▲해뜸 07:28 ▲해짐 17:20 ▲달뜸 20:23 ▲달짐 10:3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9(토)	10(일)	11(월)	12(화)	13(수)	14(목)
날 씨						
최저/최고	4/10	2/11	1/12	2/11	3/10	3/10

내년 설 연휴 열차표 12일부터 예매

2007년 설 연휴 기간(2월16일~2월20일) 열차 승차권 예매가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한국철도공사 광주지사는 오는 12일 경부선을 시작으로 13일은 호남·전라·군산선 등의 예매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인터넷 예매는 오전 6시~8시까지 한국철도공사(www.korail.com)나 철도회원 홈페이지(www.qubi.com)를 통해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역이나 여행사 창구 같은 위탁판매소는 오전 9시~11시까지 예매할 수 있다. 남는 승차권은 14일 오후 1시부터 인터넷과 역 창구에서 추가 예매한다. 한 사람당 최대 예약·예매량은 편도 6장(왕복 12장)이다. /이승배기자 lsb54@

수능 인문계 최상위권 고려대 가장 선호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400점 만점을 기준으로 390점이상의 원점수를 올린 최상위권 인문계열 학생은 정시모집 '가'군에서 고려대를, '나'군에서 서울대를, '다'군에서 한양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입시전문기관인 김영일 교육컨설팅(www.01consulting.co.kr)은 수능성적이 발표된후 대학·학과 지원전략 서비스를 이용한 수험생 6만여명을 대상으로 지원 성향을 분석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점수 400점 만점에 390점대 이상인 학생(언·외·탐 295점대, 수·외·탐 297점대)은 정시모집 '가'군에서 인문계는 고려대를, 자연계는 연세대를 가장 좋아했다.

최상위권의 '가'군에서 지원 2.3순위는 인문계의 경우 연세대와 성균관대였고, 자연계는 고려대 의대와 가톨릭대 의대였다.

'나'군에서는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서울대가 1위였고 2위는 인문계가 서강대, 자연계가 중앙대 의대였으며 3위는 인문계가 서울교대, 자연계가 계명대 의예과였다.

'다'군에서는 인문계 수험생 선호도는 한양대, 한국외대, 상지대 한의예과 순이고 자연계 수험생 선호도는 경희대 한의예과, 아주대 의예과, 순천향대 의예과이다.

380점대 수험생(언·외·탐 288점대, 수·외·탐 288점대)은 인문계의 경우 '가'군에서 고려대, '나'군에서 서울대, '다'군에서 한국외대를 지원 1순위로 꼽았다. /연합뉴스